

# 정열의 영산강...삶터, 그리고 씬터

### 나주축제 상징물·공식 포스터 확정... 10월 20~29일 개최 준비 속도 마한 문화제·도농상생페스티벌·나주 설치미술 등 5대 축제 한 곳서

올해 처음 5대 축제를 10월 한 번에 개최하는 '2023 나주축제' <광주일보 8월18일자 10면>가 지난 22일 공식 상징물(사진)을 공개했다.

나주시는 오는 10월20~29일 열흘간 영산강 둔치 체육공원에서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라는 이름의 축제를 연다.

이 기간에는 나주 대표 축제인 마한 문화제와 천년나주목읍성문화축제, 도농상생페스티벌, 시민의날 기념식, 요리경연대회, 나주 설치미술 축제 등이 함께 열린다.

축제 부제는 '아름다운 영산강에서 10월 동안'이다.

남정숙 축제 총감독은 아름다운 휴식의 공간인 영산강을 널리 알리고 체류형 관광지로 주목받도록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축제 홍보물(포스터)은 민선 8기 나주 국제 레지던스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영창 작가의 작품이다.

그는 정열의 빨강과 영산강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이야기를 강렬하게 그려냈다.

상징물(엠블럼)은 나주를 상징하는 영산강과 쌀에 착안해 만들었다.

'2023 나주축제'는 공식 포스터와 상징물을 확정하고 축제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축제 주무대는 영산강 수상 무대로 꾸며진다. 나

주를 키워낸 영산강을 배경으로 고대 마한(馬韓) 왕국에서부터 고려, 조선,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2000년 역사 속 나주가 가장 영화로웠던 주요 장면과 독창적인 문화를 축제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축제에서는 전야제(20일)와 개막식(21일), 뮤지컬, 전통 예술 공연 등을 만날 수 있다. 개막식 본행사가 열리는 10월21일 오후 7시부터는 호남 물류의 중심지였던 영산포구를 드나든 54척의 배 행렬을 재현한다.

'2023 나주축제, 영산강은 살아있다'에 대한 소식은 나주문화관광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정숙 총감독은 "2000년 나주 역사의 상징적인 사건, 그 시대 가장 영화로웠던 모습을 축제로 승화시켜 영산강에서 삶의 터전을 일궈왔던 나주시민들에게 자부심을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 함평 콩 재배 농가 방제비 긴급 지원

함평군이 계속되는 집중호우와 고온다습한 날씨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방제비를 긴급 지원한다.

이번 긴급 지원 대상은 콩 재배 농가 152곳이다. 함평군은 농협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며 2400만원 상당 방제비를 지원한다.

농업 현장 기술지원단은 다음 달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은 집중호우와 무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벼 잎도열병, 벼멸구, 흰잎마름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제를 펼친다.

함평군은 올해 들어 벼 병해충 방제를 위해 2369 농가(4600ha)를 대상으로 농작물 방제비를 지원했다.

또 마을 방송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벼 병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를 당부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집중호우와 지속적인 폭염으로 병해충 발생이 우려된다"며 "병해충 적기 방제를 통해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 12척의 판옥선! 장흥 회령포 시간여행

### 장흥군 '이순신 축제' 9월 1~3일 개최 풍어제·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 판옥선 노젓기 대회·역사 투어 회령포 골든벨·청소년 댄스 등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가 오는 9월1~3일 회진면 회령진성과 회진항 일원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회령포 문화축제 모습. <장흥군 제공>

올해 '장흥 회령포 이순신 축제'로 이름을 바꾼 회령포 축제가 오는 9월1~3일 회진면 회령진성과 회진항 일원에서 열린다.

'12척의 판옥선! 회령포 시간여행'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 달 1일 만선 기원 풍어제로 축제 막을 올리고, 12척 배 해상 행진,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 해군 흉배 식전 공연 등이 펼쳐진다.

삼도수군통제사 입성식에서는 이순신 장군과 수군, 민초들로 분장한 주민들이 거리를 누빈다.

개막식(오후 6시)에서는 선조의 교서 전달식, 회령포 결의, 출정식 등으로 명량해전 승리의 역사를 재현한다.

이튿날에는 오후 1시 회진항 앞바다에서 읍면 대항 장흥 회령포 판옥선 노젓기 대회가 열린다. 주무대에서는 전통무예 시연과 전통예술공연 '봉산탈춤' 공연이 펼쳐진다.

이날 오후에는 구례군 반달곰 씨름단의 씨름 시범과 '회령포 가요제' 등이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에는 '이익주 교수와 떠나는 회령포 역사여행', 회령포 골든벨, 청소년 댄스 공연 등 회령포의 역사 교육과 청소년 참여 행사가 진행될

다. 오후 12시 30분부터는 문화해설사와 회령진성을 돌며 역사의 현장을 탐방하는 '회령진성 역사투어'가 열린다.

이 밖에도 이순신의 활약을 담은 영화 '명량' 한

산' 상영회(1~2일 오후 8시)와 조선 수군 옷을 입어보는 '조선수군학교 체험'도 마련된다.

장흥군은 회령포 역사 전시관과 장흥 의병 추모관을 운영하며 지역 역사 알리기에에도 나선다.

김성 장흥군수는 "회령포 이순신 축제는 장흥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축제"라며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

강진군 내달 4~8일

강진군이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닷새간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진행한다.

이 기간 강진군은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자동차 관련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체납 차량에 대해 읍·면과 합동 단속한다.

번호판 보관(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과태료 체납액 30만원 이상이 영치 대상이다.

앞서 강진군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고지서를 보내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주요 지점에는 이를 홍보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자동차세는 모든 금융기관에 있는 자동화기기(ATM)와 '위택스' '스마트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김영실 강진군 세무회계과장은 "차량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조속히 체납액을 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장성군은 장성호 숲길에 최근 '전남 최우수 여름 숲길'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호수 전체를 연결하는 수변백리길(왼쪽)과 옐로우 출렁다리. <장성군 제공>

장성군에는 장성호 숲길에 최근 '전남 최우수 여름 숲길'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호수 전체를 연결하는 수변백리길(왼쪽)과 옐로우 출렁다리. <장성군 제공>

## 장성군 '전남 최우수 여름 숲길' 장성호 체계적 관리

황금빛 출렁다리·대나무숲길... 주말 1만명 찾는 명품 나들이 장소

장성군은 '전남 최우수 여름 숲길'로 선정된 장성호 숲길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장성호 숲길은 전남도가 선정한 '여름에 걷고 싶은 숲길' 가운데 최우수 숲길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는 14개 출품작 가운데 5개 숲길을 우수 숲길로 선정하고, 최우수 숲길로는 장성 1곳을 뽑았다.

장성군은 호수 전체를 연결하는 수변백리길 조성

을 마무리하면 장성호 숲길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장성군은 지역별로 걷고 싶은 숲길을 꾸준히 발굴하는 한편, 기존 숲길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도 이어갈 계획이다.

장성호 숲길은 넓은 호수와 숲이 어우러진 풍경을 감상하기에 제격이다.

장성호를 중심으로 왼쪽에는 두 개의 출렁다리가 있는 출렁다리가 있고, 오른쪽에는 숲길이 뻗었다.

숲길 중간에는 명소인 옐로우 출렁다리와 황금빛 출렁다리가 있다.

매점과 쉼터,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

장성담 하루 주차장과 장성호 숲길을 연결하는 지점에는 황금대나무숲길도 있다. 이곳은 경사가 완만해 누구나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주말 평균 1만명이 찾는 장성호 숲길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장성 대표 명소"라며 "상쾌한 여름 나들이가 될 수 있도록 숲길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 화순군 보건소, 건강교실 참가자 모집

### '에어로빅 교실'·'기공체조 교실' 선착순 접수

화순군 보건소가 '에어로빅 교실'과 '기공체조 교실' 참가자를 23일부터 선착순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방(韓方)으로 비만 탈출 에어로빅 교실'은 오는 9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매주 2회(화·목)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보건소 건강강진실에서 진행한다. 에어로빅 전문 강사와 근력 강화 운동을 익히고, 한방차의 효능과 응용 방법 등도 교육받는다.

'관절 튼튼 근육 튼튼 기공체조 교실'은 지역주민 2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다음 달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2회(수·

금)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진행한다. 기공체조는 기혈 순환과 근력 강화에 도움을 줘 관절염 증상을 완화하고 병에 걸리는 비율을 감소시키는 운동이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아 관절염 환자들에게 권장된다. 수업에서는 기공체조를 통한 심신 이완법과 호흡 훈련을 연습한다.

화순군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에어로빅·기공체조 교실에 참여하며 올바른 건강 지식을 얻고 주체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 담양군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 호응 의료 취약 가정 방문 치매 위험군 선별검사 등

담양군이 올해 여름 '찾아가는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은 향촌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담양군 공중보건과의사와 보건지소별 담당자로 구성된 의료진은 의료 취약 가정을 찾아 진료하고 있다.

기본 진찰을 하고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한다. 또 치매 위험군을 선별하기 위한 검사

를 하고 건강 상담을 하며 만성질환 예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름철 불볕더위에 마을 회관도 찾아가기 힘든 고령 가구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주민건강을 위해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를 신규 발굴하겠다"며 "거동이 불편해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의료사각지대 어르신들이 고향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마을 주치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n@